

본회 창립 제23주년 기념식 가져



본회는 지난 4월 20일 이상원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2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간소하게 치러졌는데 이상원 상근부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 “올해는 본회가 창립한지 23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1959년에 태동한지 어언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하면서 “우리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 회원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배가하는데 혼연일체로 진력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이상원 상근부회장은 본회 직원중 10년이상 장기근속직원에 대해서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장기근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년 근속> 김백락 총무부장, 양희웅 전자산업부장, 최병훈 부장, 김행준 경리과장(이상 4명)

<15년 근속> 김성복 정보산업과장(이상 1명)

<10년 근속> 윤동엽 회원담당과장, 조규재 통계담당 과장, 정재관 전산정보실장, 이진기 기획팀장, 임호기 통신산업과장, 오수경 부품산업과 대리(이상 6명)

관세제도 개선 관련부처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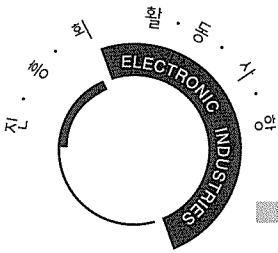
본회 기획팀에서는 지난달 22일 회원업체의 의견을 모아 현행 관세제도중에서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관세제도 개선

내용에는 수출후 재수입 면세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 관세법, 고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총33건의 세부내용이 들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는 경정청구권 시효를 2년으로 연장, 재수출 이행기간 초과 재수출시 관세·부가세 면

제, 통관 적법성 자율점검에 의거 자진 신고시 가산세 경감,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시 세액납부일 15일 이내로 연장, 수정신고 및 경정 등 세액정정 방법 개선, ITA 대상품목 등의 역관세 개선, 품목수정 분류시 기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불소급, 보세공장 사용 수입물품 수정신고 허용하는 것 등이 들어 있다.



본회 산하 보안시스템산업협의회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가

본회 산업전자과에서는 지난달 이미 구성키로 합의한 「보안시스템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정식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안시스템산업 발전과 관련 국내의 각종 전시회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것을 비롯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정보DB구축 등 회원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삼성전자, 삼성항공산업, 국제전자공업, 대흥멀티미디어통신, 한국하니웰, 중앙전자공업 및 한국통신 등 7개사가 입회해 있다.

동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작년 12월 WTDS 도쿄회의 결과에 관한 금후 대응 논의도 아울러 있었다.

CPU 할당관세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

본회 정보산업과에서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CPU관세 관련 회의를 갖고 CPU할당관세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음극선관기술위원회 워크샵 개최

본회 개발표준팀에서는 지난달 8,9일 양일간 음극선관기술위원회 워크샵을 대전에 있는 국제특허연수원 회의실에서 LG전자 등 관련업체 5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워크샵에서는 '99년도 한일 등록센터간 정기교류회 안건 검토, CRT표준화 작업을 6월중 완료, 형명등록관련 사항, 즉 홍보데이터에 대한 사전홍보 등 업계 공동관심사에 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워크샵에서는 또한 일부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등록심의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99년도 한일 형명등록센터 정기교류회 개최

본회(소장:김규완)와 일본 EIAJ(소장:스즈키 마사아키)의 한일 형명등록센터 정기교류회가 4월 15일 일본 EIAJ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디바이스 등록정보관리시스템의 전자등록 효과, NEW 멀티미디어의 신규 형명 등록방법, Glass 형명등록시 중복등록 문제, 동일 사이즈 개발시 치수차이와 형명부여의 관계, 향후 국제회의의 일정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98년도 등록실적, 위원회 활동 및 전자화 추진현황 등 양국 센터의 활

통신기기 형식승인상호 인정약정(MRA) 등에 관한 워크샵 개최

본회 통신산업과에서는 지난달 23, 24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에서 LG정보통신 등 관련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기기 형식승인상호인정약정(MRA) 등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규격취득에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EU를 꼽았다. 이는 EU가 역외 국가의 기업들이 직접 인증취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진흥회

활동사항

따라서 EU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MRA를 추진해야 할 곳으로 떠올랐다. 이밖에도 규격 취득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고 있는 개도국과 MR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MRA와 관련해 부정적

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우리의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으로 되어 있어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은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 MRA추진에 관한 정부의 추진 상황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다.

워크샵에서는 APEC TEL MRA에 관해 산업기술시험원 고창호 팀장, 해외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에 대해서는 원택시험연구소 정한모 이사, '98형식승인 등 제도개선 실적 및 '99 추진 계획에 관해서는 본회 임호기 통신산업과장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업계 애로 건의

본회 생활전자과에서는 지난달 7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중 효율 등급 표시 라벨 및 자체시험인정 업체 지정조건 등 일부사항이 우리 업계가 제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비용 상승 등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규정 제14조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와 관련 제2항의 단서문구 「다만 전기냉방기의 경우는 공진청 고시 “운영요령”규정에 따라 최대값을 결과치로 한다」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전기 냉방기 관련 중소기업 운영요령의 내용은 월간소비전력량 산출에 관한 것으로 소비효율 등급과는 무관한 사항

이며 따라서 전기냉방기의 경우도 측정치의 평균값을 결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따른 것이다.

건의문은 또 규정중 별표 2 자체시험인정업체 지정 조건에서 기술인력요건을 타법령 지정시험기관 지정기준과 형평유지차원에서 이를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자는 대학/전문대학/고등학교 이공계 학과 졸업자라고 하고,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해당 품목 시험업무관련 교육을 6일 이상 이수한자로 5년 이상의 경력 1인 이상의 경우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당해품목 시험업무 경력 1인 이상으로 기술인력요건을 각

각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저울규격을 30Kg 최소단위 0.01Kg에서 150Kg 최소단위 0.05Kg으로 변경해 줄 경우 기존에 사용중인 저울을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제조업계의 비용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건의문에서 밝혔다.

한편, 별표 5의 라벨과 관련해서는 라벨크기를 라벨부착에 따른 제품이미지 손상 등 애로를 해소키 위해서 기존의 정형화된 크기를 동일배율 변동을 허용하고 표시항목은 시험기관, 발급번호, 일자의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기준이 없어 표시에 따른 업체간 혼선을 야기해 왔던 에너지소비효율 및 월간소비전력량 값 표시기준중 에너지소비효율은 소수점 3자리까지로 월간소비전력은 정수로 표시토록 규정을 마련해 줄 것도 같이 건의하였다.

진흥회

활동사항

이어 벌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 한 참석자가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해제 이후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육성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남박사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을 일정시점까지 외국의 수입품으로부터 보호 육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으며 소비자들의 후생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해제불가 사유나 정부지원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다른 참석자가 한·일 자유무역협정체결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현황을 물은 데 대해 남박사는 “한·일 FTA체결 논의는 작년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환경마크부여기준안 검토회의 참석

본회 생활전자과에서는 지난 달 21일 환경마크협회에서 열린 환경마크부여 기준안 검토회의에 참석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대미 PCB 반덤핑 대책회의 개최

본회 통상협력과에서는 4월 21일 대덕전자 등 1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미 PCB 반덤핑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본회가 제소일정, 대상제품범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업계에 신속하게 통보해 주고 업계에서도 산업피해부문의 공동대응 및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본회 및 정부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는 등 공동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법령 개정안에 대한 가전업계 의견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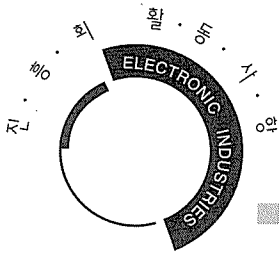
본회 생활전자과에서는 환경법령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하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 가전업계의 의견을 수렴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지난 달 27일 건의하였다.

먼저 법률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단체 회수 처리 투자금액에 대한 예치금 감면범위를 현재 5%에서 3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 현재 회수처리 목표율 일괄 90%에서 품목별 목표율로 차등화해 예치금 졸업제도 적용을 합리화해 줄 것과 예치금 이자를 할인제도 도입도 함께 요청하였다.

한편, 법에 대한 건의에서는 폐가전제품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가전 회수시 수집·운반업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여기에 폐가전 수집·운반시 재활용 신고 구비시설도 완화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본회의 건의결과 정부에서는 최근 폐가전 회수시 수집·운반업 허가대상을 개정안 입법예고시 신고대상으로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진하였다.

본회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관련 우선 품목 확대 이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품목선정 및 부여기준안에 관해 우리업체와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 여타 인증

제도와 중복된 기준으로 인한 낭비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 바이어 요구에 따라 해외의 환경마크를 취득하는 추세이므로 해외 환경마크 취득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용인해주며 또한 협회의 일방적인 품목선정, 부여기준안 설정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업체에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하였다.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제안설명회 개최

본회 부품산업과에서는 지난 4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 PC통신 등 관련업체에서 약 5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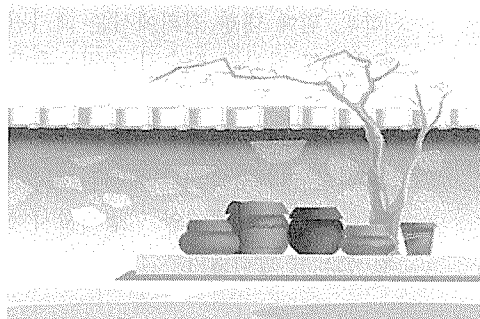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본회에서 추진중인 전자부품정보 인터넷 검색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될 경우 앞으로 관련업체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전자부품정보의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마크부여기준안 검토회의 참석

본회 자료조사실(통계담당)에서는 지난 4월말 98년 국내 전자산업 통계를 결산하는 「98 전자산업통계 연보」를 발견하고 우리 회원사 및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연보에는 전자산업 수급현황 개요, 전자산업 수급현황 분석, 전자산업 품목별 수급통계, 전자산업 수출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진흥회 4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4.7	민관합동 수출지원대책위 참석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부
4.7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업계 애로건의	(산업자원부)	전자산업부
4.8	부품 품목별 분과위원회 개최	대덕전자, 새한전자, 제은전자, 오성전자산업, 하이테크코넨, 삼흥사, 자화전자, 은성산업	전자산업부
4.8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관련 업계 대책회의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전자산업부
4.8	업종별 경기동향 회의 참석	재정경제부	기획팀
4.8	음극선관 기술위원회	(국제특허연수원)오리온전기, LG전자, 삼성전관, 삼성코닝, 한국전기초자	개발표준팀
4.13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관련 업계애로건의	(산업자원부)	전자산업부
4.14	'99 한일 형명등록센터 정기교류회 개최	일본 EIAJ	개발표준팀
4.15	PC 수출분과위원회	현대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한솔전자, 오리온전기, KDS	정보통신산업부
4.19	CPU관련 회의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LG전자	정보통신산업부
4.20	APEC 상호인정협정 대책회의 참석	산업자원부	국제부
4.21	PCB 대미 반덤핑 업계 대책회의	대덕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새한전자 등 10개사	국제부
4.21	환경마크 부여기준안 검토회의	(환경마크협회)	전자산업부
4.22	모니터 수출분과위원회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멀티캠, LG전자,	정보통신산업부
4.22	관세제도 개선 건의(안) 제출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기획팀
4.23	통신기기 형식승인 등에 관한 워크샵	(경기양평) LG정보통신 등15개사	정보통신산업부
4.27	「수입선다변화해제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의미」 세미나	광전자 등 30개사	국제부
4.27	환경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 건의	(환경부)	전자산업부
4.27	전자산업 40년사 편찬위 제5차회의		기획팀
4.30	전자부품 DB정보 공공근로사업관련 주관사업자 선정 제안설명회	한국PC통신 등 50여개사	전자산업부
4.30	지상파 디지털 TV방송 추진전담반 회의	정보통신부	전자산업부
4.30	「'98 전자산업통계 연보」 발간		자료조사실